



## 대림 제4주일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시편 24(23),1-2,3-4,7,5-6(◎7ㄷ과 10ㄷ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  
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  
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  
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로마 1,1-7

**복음 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순교 사적지

마재 성가정 성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698-44

관할

마재 성지 성당 031-576-5412

마재 성가정 성지는 의정부교구가 시작되면서 성역화  
를 시작한 성지로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주역들의 생  
활 터전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의 다섯 가족은 모  
두가 성인품과 복자품에 올라, 교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영광스럽고 모범이 되는 성가정이다.

마재 성가정은 명도회 초대 회장이자 최초의 한글 교  
리서 “주교요지”를 쓴 복자 정약종과 성녀 유선임(소  
사) 체칠리아 부부와 자녀인 복자 정철상 가롤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으로 모두 성인  
품이나 복자품에 올라있다.

또한 조선의 첫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바오로)은 정약  
종과 인척이고, 하느님의 종으로 복자품을 기다리고  
있는 이벽(요한), 이승훈(베드로), 황사영(알렉시오)  
역시 훈인으로, 그 외에도 한국 초대교회의 많은 분들  
이 마재 성가정과 연결되어 있다. 성지 인근에는 정약  
용의 생가와 묘가 남아 있어 둘러볼 수 있다.

# 임마누엘 하느님



박상윤 마티아 신부  
교하 부주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혼밥도 맛있지만, 이 말은 어떤 음식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마치 네 개의 대림초가 ‘꽉 차게’ 다 켜진 것처럼, 함께 하는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하느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나 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1,23)

하느님께서서는 오늘의 복음 말씀으로 당신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였죠.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가만히 머물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도 견딜만해지고 심지어 지옥조차도 더 이상 지옥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요 천국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23-1037항, 천국과 지옥).



17세기 프랑스의 가르멜회 수도자인 로렌스 수사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하느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물렛을 뒤집고 바닥의 지푸라기를 줍는 주방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다고 하지요.

우리도 임마누엘 하느님의 이름에 단단한 믿음을 둔다면, 대림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천국처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 덕분에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꽉 찬’ 대림초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살아있는 구유

왕이 있었다. 왕은 방을 써서 나라의 곳곳에다 붙였다. ‘선달은 별이 내리는 달이다. 각자가 별을 받을 구유를 하나씩 지어 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여라. 살아 있는 구유로 판정이 내려진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구유를 만드는 데 정신이 없었다. 서로가 더 나은 구유를 만들기 위해 재료 경쟁이 치열했고 숨씨 싸움 또한 불만하였다.

종을 지을 때처럼 주물로 구유를 빚는 부자도 있었고, 대리석으로 구유를 조각하는 예술가도 있었다. 어떤 권력가는 몇 백 살이나 먹은 향나무를 도벌해 와서 구유를 만들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치장 붓까지 일어나서 구유에 금도금을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쪽에 비단을 대어서 우아하게 꾸몄다. 심사일이 다가오자 응모자들은 모두 들떠서 술렁거렸다. 전시장에다 각자가 만들어 온 구유를 내다 놓고 가슴을 조였다. 왕이 몸소 전시장에 와서 구유를 살폈다. 그런데 왕의 심사 방법이 아주 특이했다. 가슴속에서 빛나는 별을 꺼내어 구유에 살며시 놓아 보는 것이었다.

왕은 주물로 빚고 금도금을 한 구유 속에서 별을 놓았다. 그러자 별은 구유 속에서 이내 굳어져 쇠 인형으로 변하였다. 왕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는 대리석 앞으로 갔다. 별을 꺼내어서 대리석 구유 속에 넣었다. 그러자 별은 돌 인형으로 변하였다. 왕은 고개를 저었다. 향나무로 구유를 만든 권력가의 가슴이 부풀었다. 이제 자기의 구유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이 가까이 오자 그의 호흡은 심하게 거칠어졌다. 왕이 자기의 향나무 구유에다 별을 놓을 때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애석한지! 별은 향나무 구유에서조차 불품없는 인형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무 인형이라는 것일 뿐.

별이 변하기는 어느 구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쇠로 빚은 구유에서는 쇠 인형으로, 돌로 만든 구유에서는 돌 인형으로, 그리고 나무로 만든 구유에서는 나무 인형으로 뿔뿔해지곤 했다. 궁으로 돌아가려던 왕은 문득 군중 틈에서 멈칫거리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나오너라.”

소녀는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사는 녀마주이었다. 소녀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차마 버리기 아까운 헛 나무를 주워 잇대고 조각 천을 이어서 바닥에 깔 작은 구유를 안고 있었다. 왕은 녀마주이 소녀의 그 가난한 구유 속에 별을 놓았다.



그러자 보라! 갑자기 별이 숨을 쉬면서 거룩한 아기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왕은 기쁨에 넘쳐서 말했다. “이리들 오라. 이 가난한 소녀의 구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구유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유의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의 구유에서는 인형으로 있는 별도 정갈한 마음의 구유에서는 거룩하게 살아 움직인다. 이 태어남이 진짜인 것이다.” ☺



대림과 성탄 시기를 동반하는 묵상집

## 별이 빛난다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최대한 신부 옮김 | 면수: 196면 | 13,000원  
가톨릭출판사

문의 | 전화 02-6365-1851 edit@catholicbook.kr

### 성탄을 기다리며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다

매일매일 일정량의 글을 읽는 독서는 몰아치듯 읽기보다 때로 감미롭다. 그리고 소중한 무언가를 아껴 뒀다 꺼내는 재미가 있다. 이 책은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성탄을 거쳐 그 다음 해인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매일 하루치 이야기와 묵상 주제를 꺼내 놓는다. 실제로 챕터를 날짜 별로 구분해 놓아서 읽으며 생각 속에 머물 틈을 준다. 아이들이 성탄

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달력의 선물을 매일 하나씩 꺼내 보듯, 필자가 기꺼이 허락한 일기장을 조금씩 펼쳐 보듯 이 책을 즐길 수 있다. 대림 시기를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은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책을 건네 보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상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12월 19일 (목), 25일 (수), 26일 (목) 밤 10시

KBS 1TV

2005년, 영화 <위대한 침묵> 에서 소개된 카르투시오 수도회가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엔 경북 상주에 자리한 모동 수도원이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전 생애를 바쳐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카르투시안들의 이야기가 3부작 다큐멘터리에 담겼다.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구리 부주임

## 고통과 인간의 삶

프랑스의 문호 알베르 카뮈의 1947년작 소설 '페스트'는 불가항력의 고통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프랑스령 알제리 북부의 작은 해안 도시 오랑입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페스트가 발병하였고, 도시는 격리 조치 당합니다.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은 무려 1년이나 지속되었고, 도시 안에 갇힌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러던 중 등장인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병 중이던 어린아이가 결국 숨을 거두었고, 소설의 긴장도 극에 달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주인공 리유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놓은 이 세상이라면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리유의 절규를 보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의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고통과는 무관한 분이실까요? 아니라면 어쩌서 이 세상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 인간의 일생은 다른 말로 고통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리유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기 마련입니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느 때는 어려움을 딛고 열심

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에 하느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들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면 리유처럼 하느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고통과 마주한 인간은 그 안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을 의지하거나 반대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바로 이 고통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역사 안에서 사회교리는 교회가 세상 고통과 마주하며 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고통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느님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고통의 현장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리유와 같은 사람들의 의문에 응답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년간 사회교리에 관해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교리의 여정을 따라오시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과, 그분을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의 역할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세계의 유명 오케스트라들의 이름 중에 \*\*필하모니 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하모니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Philos라는 단어와 Harmony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Phios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armony는 '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이름 안에 녹아 있는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조화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피델리스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이렇게 조화를 사랑하고, 다른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어 갈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양성 방향도 여기에 있습니다.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양성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양성해나가는 것이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운영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연 1회의 정기 연주회와 2019년도 서품식 전례음악 연주, 정기적인 봉사연주와 요청이 있는 본당의 전례음악 연주 및 본당 음악회 출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연주가 때로는 미숙하기도 합니다만,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저 아름답지만 합니다.

전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조화로운 삶을 배우고 싶은 초,중,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알아보실래요?

## 라인란트 하류의 초기 로마네스크

# 트리어 대성당

강한수 가롤로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회에는 신성로마제국의 동부 지역인 작센을 중심으로 독일의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는 신성로마제국의 서부에 위치한 라인란트 지역의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인강을 따라 길게 형성된 라인란트 지역은 하류와 상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류 지역은 옛날 카롤루스 대제 시절의 아헨 왕궁과 가까운 지역으로 쾰른과 에센, 트리어 등이 속해있습니다. 아헨 왕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지역의 성당은 카롤링거 왕조에 대한 향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욱 짙었고, 그래서 건축술의 발전보다는 대형 공간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이 카롤링거 왕조의 영광을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먼저 수직 방향의 확장을 위해서, 곧 천장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기둥이 두꺼워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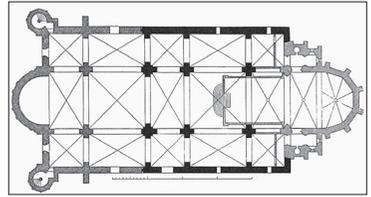


트리어 대성당의 웨스트워크

습니다. 그리고 수평 공간, 곧 네이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무거운 석조 볼트천장 대신 목조 평천장이 트러스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쾰른의 장크트판텔레온(980년) 성당과 에센의 수도원 성당(11세기초), 그리고 트리어 대성당(1070년)이 라인란트 하류 지역의 대표적인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들입니다.

트리어 대성당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지만 오토 건축

에서 더블 엔더에 의한 평면 구성이 이루어졌고, 목조 평천장에 원형 기둥과



트리어 대성당 평면도

십자형 다발 기둥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웨스트워크는 외관상으로는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네이브와 연속 공간으로 되어 있어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워크의 외벽에서 롬바르디아 밴드의 장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인란트의 상류 지역은, 북부 프랑스와 인접한 하류 지역에 비해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적으로는 더 발달하여, 네이브월은 아케이드층과 클리어스토리(천측장)의 2단 구성으로 정리가 잘 되었고, 기둥도 사각기둥과 원형기둥의 교대 리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회에서, 작센의 성 미카엘 성당이 사각형의 주기둥 사이에 원형의 부기둥이 두 개가 들어간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작센 리듬'이라고 부른다면, '라인 리듬'은 사각기둥(주기둥)과 원형기둥(부기둥)이 교대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오토 건축의 특징인 더블 엔더 역시 잘 나타나며, 계단실로 이루어지는 탑과 네이브월의 추상적인 면처리도 라인란트 상류 지역의 성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성당은 슈파이어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슈파이어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전성기에 한번 더 커다란 발전을 이룩기 때문에, 초기 로마네스크의 성당을 '제1 슈파이어', 전성기 때의 성당을 '제2 슈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는 프랑스 초기 로마네스크의 '제2 클뤼니 수도원 성당'이 전성기 로마네스크 때 '제3 클뤼니 수도원 성당'으로 발전한 것과 비길 수 있습니다. 제1 슈파이어 대성당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



## 교구장 동 정

12월	22(주일)	11시	견진성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4(화)	20시	성탄밤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5(수)	11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빈첸시오의 집
	27(금)	14시	아우구스티노수도회 서품식 - 일산 성당

## +

## 교구 소식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당 사무실 비치/매년제출) /발급시기 2020년 1/15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시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당 사무실 방문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31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 2020학년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의정부 본원, 오후반

수업 매주 화,목 14시~16시10분 /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15주간 수업

과목 성경 6과목, 교리 10과목 등록금 학기별 35만 원 문의 031-850-1546

### 〈성소국〉 성소후원회 미사

5,6지구 일시 12/26(목) 10시

장소 화정동 성당

7,8지구 일시 12/26(목) 10시

장소 교하 성당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월 6일(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유미란, 조희정 헬레나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 행주 성당 미사(전대사) 문의: 031-974-1728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시 1/1(수) 11시, 고백성사: 10시

### 〈순교자공경위원회〉 조선 선교사 루트 성지순례

일시 2020.2.6(목) ~ 11(화) 5박 6일

장소 페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에 포함된 성지

비용 약 310만 원

접수마감 ~ 2020.1/10(금)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교구 홈페이지 참조

### 〈병원사목부〉 CPE(임상사목교육) 2020년 봄학기 학생

대상 위기에 처한 이웃과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돌봄 훈련을 원하시는 분

정원 선착순 8명

교육비 80만 원

교육 2/29~6/20, 매주(토) 16주간

장소 의정부교구 주엽동 성당



## 미사 · 피정 ▶▶

### 교구 성령기도회 철야: 성숙한 신앙의 여정

일시: 매주(금) 21:10~01:20시 마두동 성당 (12/27) / 주제: 봉사를 통한 성장

강사: 최이학 요안나(수원교구회장)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위탁피정 모집

대상: 성인단체, 첫영성체, 노인대학

일정: 1일, 1박2일(문의 031-840-0018)

### 2020년새해피정-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일시: 1/5(일) 9:30~18시 / 장소: 정릉본원

문의: 010-4096-5973

주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4~6(한라산), 1/13~15, 1/17~19(한라산), 2/1~3(한라산), 2/7~9(한라산), 2/13~15

접수: 02-773-1463 / 064-756-6009

###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1/4)

후원회 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12/23)

위령 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12/27)

고양시 토당동 / 문의: 031-926-3090

### [성심교육관] 송구영신 감사 철야기도

일시: 12/31(화) 22시~20.1/1(수) 04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차량운행

###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 왜 겁을 내느냐(마르 4.40)

강사: 안정호 신부 / 일시/장소: 12/27(금) 10시 ~13시/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 무료, 미사봉헌

### 송년 감사피정

일시: 12/31 19시~20.1/1 14시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서울본원)

대상: 성소를 찾는 35세미만 여성

신청: 010-9816-0072, 회비: 1만 원

###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피정

일시,장소: 2/5(수)~9일(일)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회비: 36만 원(36명,1인실)

지도: 허성준 신부, 이경희 수녀

문의: 010-4731-2468 최 안나

###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일정: 1/10(금)~18(일), 2/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교육 · 모집 ▶▶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2020 리더십캠프 모집

1/6(월)~8(수), 초4~6(비신청가능)

1/20(월)~22(수), 복사단(중학생포함)

각 캠프는 대상에 맞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840-0742

### 운정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주임신부 추천서

접수마감: 12/31(화) 까지

문의: 사무실 031-949-9114

### 퇴계원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자격: 전례 및 지휘 경력자 우대

서류: 교적증명서, 서류심사(이력서, 자기소개서)후 신부님 면접 /페이: 유급 월 50만 원

제출: eunajoy@hanmail.net (12/25까지)

###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10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061-280-5108, 5150

###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1(월)~20.2/7(금)(우편신청

가능)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주말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시: 20.2/21~23

장소: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집

문의: 02-929-2141

### 2020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26(목)~12/31(화)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전형방법: 수능위주, 실기위주

문의: 032-830-7012(송도국제캠퍼스입학홍보과)

###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몬띠노인요양원)

###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입학상담: 053-850-2580

###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04535 서울 중랑우체국 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 커피바리스타교육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 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산자연중학교 진학예비학교 학생모집

대상: (현)초6, (현)중1

일시: 2020.1.7(화) ~ 9(목)

문의: 054-338-0530

### 카프성모병원 3교대 간호사 모집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산하 병원 /서류접수마감: 12/31

홈페이지: www.karf.co.kr 참조

##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6(월)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소오르간아카데미

##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12/26(목)~12/31(화)

문의: 043-270-0100

## 관상기도 배우기(제22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장소: 행주 성당(회비 무료)

일시: 1/7(화) 14시~16시(6주간)

문의: 031-974-1728

## 로스리오 기숙생 모집

대상: 여대생(로스리오 성모의 도미니코 수녀회)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 안내 · 기타 ▶▶

### 〈나무그늘〉 문화의 트랙을 여러분의 글로 꾸며주세요

〈문화의 트랙〉에서는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교우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순례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원고는 〈문화의 트랙〉 코너에 소개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분량: 10포인트 A4용지 1장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이메일만 접수)

## 〈나무그늘〉 사진 공모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순간 /이야기가 있는 목주 /나의 기도공간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samok@uca.or.kr

## 두루미 생명평화기행

민통선 내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 등 겨울 철새를 통해 생태의 소중함,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나눕니다.

지역 주상절리 및 유적지 탐방 포함

일시: 1/11(토), 2/8(토) 9시~오후 18시

장소: 임진강 유역 파주, 연천 일대

회비: 1인 2만 원(선착순 40명 모집)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 2020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상담 및 문의: 아라마크 010-3362-5401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2/16 다낭 마카오 6일 145만원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원

3/9 발칸반도(메주고리에) 12일 355만원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 가톨릭여행사 (문의: 010-5235-3533)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2/1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05만 원

3/10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4/20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375만원

## 야곱 전국성지순례 // 02-755-3009

베트남, 마카오순례: 6명 부터 출발

일자: 3/1~3/5(5일간)

고토순례 : 4/20~4/24 (5일간)

## 한마음수련원 조리사 모집

모집분야: 단체급식 조리사 모집

자격요건: 경력1년 이상, 한식조리사 자격증

우대사항: 인근거주,여성우대,운전가능자,가

톨릭신자 /자세한사항은 본원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 라파엘여행사02-778-8565

이스라엘,요르단10일 3/29 4/20 289만원

이스라엘9일 1/30 369만원 3/30 299만원

이태리일주9일 2/25, 3/12 279만원

스페인 포르투갈10일 3/4 299만원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전화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상담전용: 02-990-9366 /대면상담: 우울,

불안,대인관계,가족갈등: 02-990-9360

##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3/27.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70만 원

문의: 02-722-8366(코로나여행사)

##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전화접수: 031-850-1406, 1411

전자우편: clergy@uca.or.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예수고난회	1/4 18시~1/5 11시	서울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 04 영성의 향기

## 감정의 홍수

김동규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본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우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분노의 감정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혹은 용기가 없거나 화를 참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며 스스로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애매하게 암시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강하게 드러내기도 할 것입니다.

분노와 모욕, 상처의 감정이 우리 마음의 강물에 계속해서 쌓이면 처음의 깨끗했던 강바닥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고, 물 속으로 꺾꺾 눌러졌던 감정의 나무토막들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마음 속으로는 우유부단한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빙산의 수면 위 부분을 우리가 처음 느낀 분노라고 한다면,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은 예전부터 쌓여 있던 실망,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는 일차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충동적인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우선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일차적인 감정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으며 내 일차적인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생활과 우리의 감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성신학자 샤를 안드레 베르나르 신부는, 신앙 안에서 고통을 행복의 선물로 바라보거나 또는 의지할 곳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허무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서와 감정이야말로 신앙체험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쁜 기분과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이 잔뜩 든 기도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조건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목동이 장대로 양떼를 이끄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떼는 하느님을 향한 여정 안에서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우리의 충동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상징합니다. 장대는 하느님을 향해 끊임 없이 나아가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떼와 같이 온갖 부정적인 정서들을 체험하지만,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먼저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안에서 감정과 정서들을 스스로 감지하고 조절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히려 삶 속에서 풍요로운 하느님 체험을 만들어내면서 영적 성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